

유럽증시... 다음은 내가 오를 차례인가?(KBSTAR 유로스탁스50(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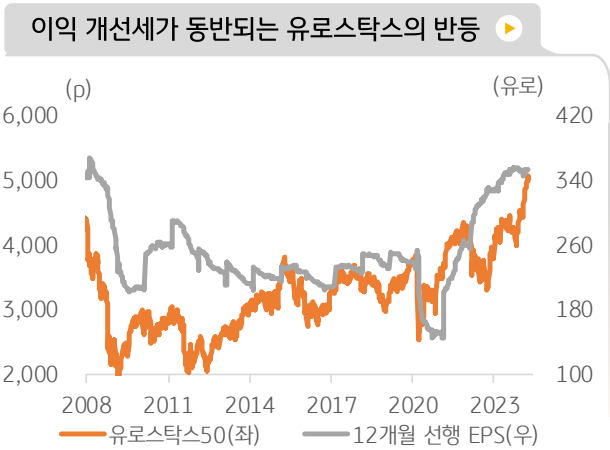
■ 펜데믹 종료 선언 이후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견조한 매크로 환경이 뒷받침됐던 미국 증시, 역사적인 엔저로 수혜를 입은 일본 증시와 달리 선진 증시 내에서 유럽의 상대성과는 부진했음.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천연가스 등 에너지 대란에서 최대 피해국이었고, 글로벌 증시의 강세를 이끌었던 AI 열풍 속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IT 섹터 시가총액 비중(13.9%)으로 소외됐기 때문

■ 그러나, 유로스탁스50지수는 연초대비 10.9% 상승하며 글로벌 증시의 강세를 뒤따르고 있음. 최근 유럽 증시가 재조명받는 이유는,

- 1) 상장사들의 이익 개선이 동반되는 증시 강세: 유로스탁스50의 12개월 선행EPS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 이익 개선이 동반되기에 최근 랠리에도 12개월 선행PER은 13.9배(S&P500 20.9배) 수준에 불과해 밸류에이션 부담 낮음
- 2) Fed를 앞선 6월 금리 인하 가능성: 유로존은 2023년 10월 이후 소비자물가가 2% 안착 중. ECB는 기준금리를 4.50%로 8개월째 동결 중이나, 4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물가 목표치에 가까워진다는 확신이 높아지며 오는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함
- 3) 경기모멘텀 바닥 확인: 2022년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경기 하강을 겪었던 유럽은 제조업PMI와 CESI 등 서베이 지표에서 저점을 확인 후 반등 중. 2023년 기준 유럽 상장사들의 역외 매출 비중은 58%(출처: REFINITIV)에 달하기 때문에 대내외 경기 개선시 반등 탄력 강화될 전망(4.15 기준)

■ 유럽증시의 강세 연장 예상에 따른 ETF 투자 전략

: **KBSTAR 유로스탁스50(H)**는 유로존 8개국(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을 유동시가총액가중방식으로 투자. 골드만삭스에서 눈여겨볼 유럽주식으로 손꼽은 그라놀라스(GRANOLAS)도 대다수 포함. 유로화에 대한 환 헤지로 환율 변동 위험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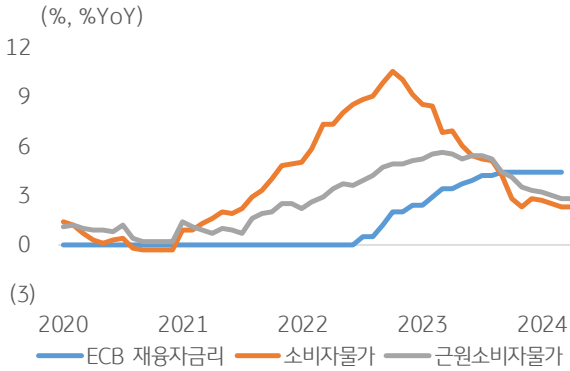


TOP 10 편입 종목

종목명	비중(%)
ASML Holding NV	9.09
DJ EURO STOXX 50 JUN 2024	7.14
원화예금	5.51
LVMH Moet Hennessy Louis Vuitton SE	5.46
SAP SE	5.04
TotalEnergies SE	4.48
Siemens AG	3.52
Schneider Electric SE	3.26
Allianz SE	2.79
L'Oreal SA	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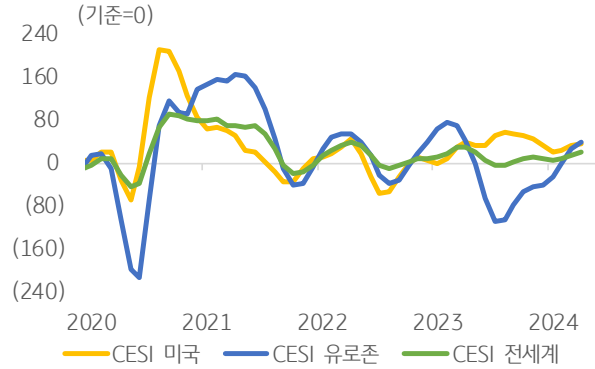
출처: KB자산운용, 2024. 4. 16 기준

2%대 물가 안정으로 높아진 금리 인하 가능성 ▶



※ 출처: Bloomberg, KB자산운용

유로존의 경기 반등은 이제 시작 ▶



※ 출처: Bloomberg, KB자산운용

주: CESI는 씨티그룹이 발표하는 경제지표의 흐름을 알려주는 지수로 0보다 크면 경기 확장, 0보다 작으면 경기 위축 국면

※ KB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투자광고 2024_415(다)’

※ 본 자료에 기재된 투자전략 및 투자 프로세스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만 제시된 것이므로,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별도의 고지 절차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자위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